

‘설 연휴에도 춘천은 열린다’

주요 관광지 정상 운영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설 명절 연휴 기간 삼악산호수케이블카와 사이로 248, 구곡폭포 등 춘천 주요관광지를 정상 운영한다.

춘천시에 따르면 설 명절 기간인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삼악산 호수케이블카와 사이로 248, 국립춘천숲체원, 레고랜드, 남이섬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삼악산 관광지와 구곡폭포, 등선폭포 등 주요 자연 관광지는 연휴 기간 무료 개방된다. 소양강스카이워크, 애니메이션박물관과 토이로봇관, 김유정문학촌 등 공립 관광·문화시설은 설 당일을 제외하고 운영한다.

애니메이션박물관과 토이로봇관에서는 한복을 착용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료 입장 혜택을 제공한다. 전통놀이 체험과 참여형 이벤트 등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했다.

여러 관광지를 묶어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춘천 투어패스도 설 연휴 춘천 여행을 계획하는 관광객들에게 실속 있는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다. 투어패스를 활용하면 짧은 연휴 일정 속에서도 다양한 관광 명소를 효율적으로 둘러볼 수 있다.

춘천 대표 관광지인 남이섬은 설 연휴 기간 전통 티악 퍼포먼스와 떡메치기 체험 등 명절 분위기를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육동한 시장은 “설 연휴에도 춘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다”며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춘천에서 다채로운 관광 콘텐츠와 함께 뜻깊은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속초시, 공공기관

유치 발 벗고 나선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속초시도 공공기관 유치에 본격적으로 대응한다.

속초시는 9일 이병선 시장이 주재한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관광 중심 산업 구조를 보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어서 공공기관 이전 당위성으로 동서고속철과 동해북부선 개통 이후 양양국제공항, 북방항로와 연결된 강원 동해안 육·해·공 교통 중심지로의 부상, 천혜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로서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라는 점 등을 강조했다.

유치 대상으로는 관광·해양·환경·안보·복지·체육 6개 분야의 △코레일관광개발(주) △해양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남북하나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한체육회 등이 포함된 14개 공공기관을 꼽았다.

공공기관 이전 예정지는 속초 역세권 개발 사업 부지로, 이곳은 지난 2022년 국토교통부의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약 5,100억 원이 투입돼 속초시의 미니 신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김진태 지사, 국회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강력 촉구”

국회 천막농성 이틀째, 오전 9시 50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실 앞 찾아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대국회 투쟁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9일(월)부터 국회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2월 10일(화) 국회 행정안전위

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투쟁’이라고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를 강력 촉구했다.

이날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행정통합특별법이 상정돼 심사가 진행 중이며, 해당 법안은 11일까

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유상범 국회의원(홍천·횡성·영월·평창)도 ‘강원도민의 삶을 바꾸는 선택, 강특법 3차 개정 즉각 통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에게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 시도인 5급은 빠른 속도로 국회 심사대에 오른 반면, 정부 부처 협의까지 마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17개월째 단 한 차례도 법안심사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강원·전북·제주·세종, 이른바 3특과 행정수도 특별법안 역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월 10일 강원 연구원에서 18개 시군 농정부서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농정분야 시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민석 기자

동해 전천에 ‘바다열차 콘셉트’관광시설 조성

동해시는 전천 수변공간에 기차를 형상화한 관광·휴양시설 ‘전천스테이션’과 9홀 규모 미니골프장 조성을 완료하고 오는 2월 11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 조성은 북평5일장 중심 뒤를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천 일원을 가족친화형 체험·휴식 공간으로 확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천스테이션은 길이 약 18m 규모의 기차 모형 가설건축물 2동으로 조성된 테마형 카페 시설로, 동해안 해안선을 달렸던 ‘바다열차’를 콘셉트로 디자인됐다.

내부에는 카페·편의점, 캐릭터 굿즈 판매 공간, 휴게 공간 등이 마련돼 방문객이 전천 수변 경관을 바라보며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시설 전면에는 기존 데크를 철거하고 길이 52m 규모의 전망형 데크를 새롭게 조성했다. 데크 중앙에는 디지털

미디어월을 설치해 야간에도 볼거리를 제공하며 전천 수변경관 조망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전천스테이션 하부에는 가족단위 등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체험형 스포츠 시설인 9홀 미니골프장을 함께 조성했다. 이용객은 시설 내에서 골프 클럽을 대여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운영 여건에 따라 이용 방식이 조정될 수 있다.

운영시간은 비수기(11월~3월) 오전 9시~오후 7시, 성수기(4월~10월) 오전 9시~오후 8시이며, 미니골프장은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동해시는 앞서 1단계 사업으로 캐릭터 공원을 조성한 데 이어 이번 2단계 사업을 통해 노후 전천나루카페를 철거하고 전천스테이션을 설치해 전천 일원의 관광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확충했다.

김민석 기자

평창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평창군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농촌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는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2026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수거 기간은 오는 2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봄철 산불 조심 기간(1월 20일~5월 15일)과 연계하여, 불법소각 행위를 방지하고,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평창군은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기타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사업 등을 통해 원활한 영농폐기물 처리를 유도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마을 이장 회의, SNS 등을 활용에 적극적

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중 수거 기간에 불법행위 단속도 병행한다. 특히 불법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급증함에 따라, 불법 소각 행위 적발 시, 가벼운 계도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장영구 환경과장은 “이번 집중 수거 기간을 통해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유도하고,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김민석 기자

횡성군, “농업인도 이제 브랜드 경영자”



횡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웅)는 농업인의 가공 창업 장벽을 낮추고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난 6일 오후 2시 센터 내에서 ‘2026년 안심가공공유플랫폼 제조원 제공 협약식’을 개최했다.

제조원(식품제조가공업) 제공 협약은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해 2025년까지 총 34개소와 체결됐으며, 올해는 유통전문판매업을 보유한 농업인 19개소와 협약을 진행했다.

김민석 기자

이는 전년 대비 협약 개소수가 대폭 확대된 수치다.

이번 협약은 개별 농업인이 고가의 설비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식품제조가공업’을 직접 등록하지 않아도, 안심가공공유플랫폼의 시설을 활용해 개인 브랜드 상품을 합법적으로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센터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부합하는 제조 공정 기술을 전수하고,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 장비 활용 및 관련 부자재를 규정에 따라 지원할 방침이다.

박기웅 소장은 “이번 협약이 생산을 넘어 제조와 유통을 아우르는 농업경영체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공 품목을 다양화하고 판로 개척을 위한 컨설팅을 지속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원주시, 산업통상부 ‘문화선도산단’ 공모 도전

일하는 공간을 넘어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단지로 전환

산업단지의 공간적 잠재력 극대화



원주시는 산업통상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문화선도산단 선정 공모’에 지난 6일 도전장을 제출했다.

이번 공모 사업은 산업단지의 이미지 개선과 산단 내 문화시설 확대, 문화 콘텐츠 지원, 제조·문화 융합 확산 등 4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지역과 민간이 주도해 창의성과 자율성을 발휘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원주시는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의 핵심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여가·휴식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최근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삼양식품이 입주한 우산일반산업단지, 숙련된 전기·기계 기술을 기반으로 첨단 헬스케어 기업들이 집적된 태장농공단지를 대상으로 이번 공모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문화·복지·환경 요소를 산업단지에 접목해 신성장 동력으로 재전환하고, 새로운 산업·문화 거점으로 도약함으로써 청년과 근로자가 머무르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